

전남 농촌마을 교통·교육 인프라 10년 전보다 퇴보

■전남 농어촌마을 생활모습

전남지역 농어촌마을의 교통 편의성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가 넘는 농어촌 학생들은 다른 마을로 고등학교를 가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차로 30분 안팎 달려야 하는 지역이 대다수였다.

또 종합병원은 고사하더라도 10곳 중 3곳은 일반 의원과 약국조차 없었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우리지역 농어촌마을 생활모습'(2020년 12월 기준) 기획보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어촌마을 중 주민들이 도보 1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은 전체 6785개 중 543개(8%)로, 지난 2010년(316개)보다 71%(227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시외버스가 다니던 마을은 1072개에서 541개로 49.5% 줄었고, 기차가 달던 곳도 186개에서 91개로 반토막(-51.1%)났으며, 여객선 역시 216개로 17개가 감소했다.

전남 농어촌의 교육 여건도 녹록치 않았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읍·면·외)으로 떠나야 하는 마을은 63.5%(4306개)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7.5%보다도 6%포인트 많은 수치였다.

걸어서 15분내 대중교통 탈 수 없는 곳 543곳...10년만에 71% ↑

10곳 중 3곳 의원·약국 없어...타 지역으로 고교 진학 4306곳 달해

이동거리가 차로 10분 미만인 곳은 2.4%(164개)에 불과했고 10~29분 미만이 40.9%(2777개), 30분 이상도 20.1%(1365개)나 됐다.

다만 마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비율은 각각 95.2%, 97.4%로 전국평균과 비슷했다.

학원(입시·보습)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학원이 있는 마을은 34.4%, 없는 마을은 65.6%였다.

다른 마을로 차를 타고 10분 내로 학원에 갈 수 있는 비율은 1.2%, 10~29분은 37.8%, 30분 이상도 26.6%나 됐다.

의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다. 일반 병·의원과 약국이 같은 지역(읍·면·내)에 없는 마을이 각각 전체의 35.5%, 30.4%였다. 한방병원이 없는 마을은 51%, 치과병원은 60.6%, 종합병원은 94.6%였다.

다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마을 내에 있는 곳은 각각 91.2%, 85.5%로 높았다.

문화·복지시설도 미비했다. 마을회관은 대부분은 갖추고 있었지만,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어린이

집이 없는 마을이 26.3%나 됐고 도서관(48.3%), 노인복지회관(32.8%) 등도 없는 마을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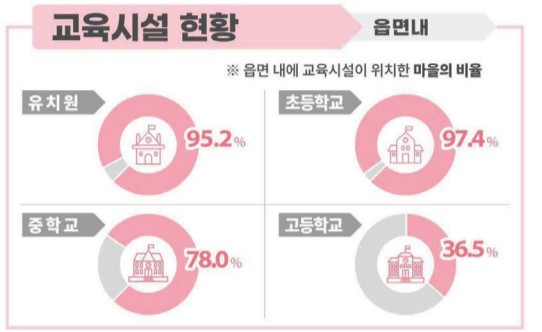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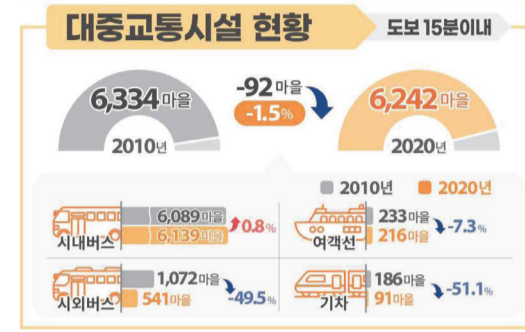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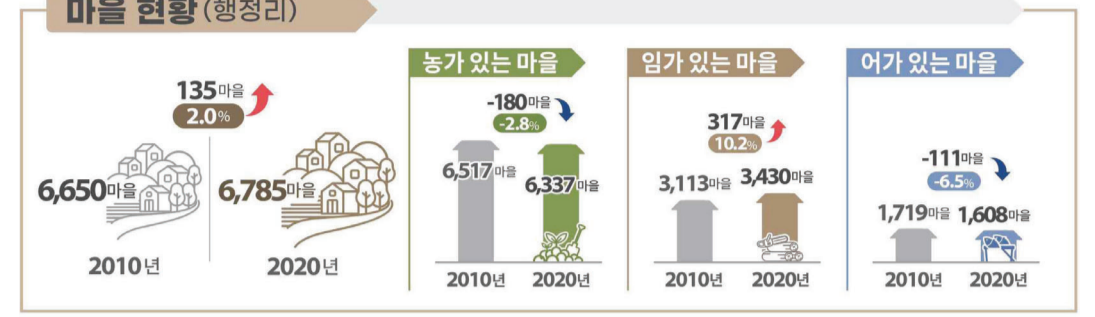
금융기관 중 농어촌 생활과 밀접한 우체국(98.2%)과 협동조합(97.6%)은 대부분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은행(83.4%)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위치했으며,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도 40.1%를 차지했다.

한편, 전남은 농어촌마을이 10년 전보다 135개 늘어난 67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고층이 515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해남(514개), 나주(453개), 무안(417개) 순이었다. 구례가 155개로 가장 적었다.

일손 부족 문제 등으로 농가가 있는 마을은 2010년 6517개에서 6337개로 2.8%(180개) 줄었고, 어가도 6.5%(111개) 줄어든 1608개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남지역 농어촌 마을은 교육, 의료,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아직 많다"며 "물론 기

■전남 농어촌마을 생활모습



출처: 통계청(농림어업총조사)

초시설은 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결국 큰 병에 걸리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떠나

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yang@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들 중국 의존도 높다

핵심 원자재 대체 공급망 부족...10개 중 7개 의존을 80% 이상

광주·전남 기업들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품목을 대체할 만한 공급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요소수, 갈륨, 게르마늄 등 수출통제로 국내 산업계가 애를 먹었는데, 광주·전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의 중국 의존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량이 가장 많은 직류전동기(모터)는 98%에 달했고, 이밖에 회전속도계(4위) 98.6%, 스타타이어코드(5위) 100%의 의존율이 높았다.

전남의 경우 10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의존도가 90%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희소자원인 망간

은 95.2%였다. 가장 많은 수입 품목인 철강판은 63.4%, 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제품은 97.9%였다.

광주와 전남의 수입 총액 중 중국산의 비중은 각각 18.7%(11억5000만 달러), 3.5%(11억8200만 달러)로 크지 않지만, 품목별 의존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지역본부가 기업 22곳을 상대로 대체수입선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수입 대체 채널이 없는 기업이 전체의 54.6%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발 수출통제의 자체 대응책으로 가장 먼저 대체수입선 발굴(54.5%)을 꼽았다. 이어 별도의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18.2%, 재고량 비축으로 대응한다는 기업은 18.2%였다.

이처럼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제한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기업의 54.5%가 중국의 수출

제한이 상품제조 및 매출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제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원부자재 수급비용 상승대비 금융·보증 ▲수입관세 인하 ▲국산화를 위한 R&D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진형석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중국의 수출통제는 핵심 원부자재 소상처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리스크임을 보여줬다"며 "당장 공급망 리스크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업은 유사시를 대비한 적정 재고량 확보, 수입선 다각화, 품목의 국산화를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에서는 우선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 관리, 수입 대체선 발굴 지원, 희소부자재 국산화·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가 오는 2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부산엑스포' 택시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바지 유치전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런던의 명물인 '블랙랩'을 '부산엑스포 택시'로 꾸미고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영국 런던 도심에 배경으로 부산엑스포 홍보에 나선 부산엑스포 택시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5G 단말기서 LTE 요금제 쓴다...SKT 약관 개정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이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지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단말·네트워크 품질 선호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고객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코스피	2511.70(+1.28)
↓ 코스닥	814.61(-2.40)
↑ 금리(국고채 3년)	3.666(+0.022)
↑ 환율(USD)	1300.50(+11.30)



지난 21일 고성신(가운데) 농협 광주본부 본부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광주시 관산구 지하동의 배추농가를 찾아 배추 수확을 돕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광주시관광공사 농촌 일손돕기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1일 광주시관광공사와 함께 삼도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일손돕기에는 고성신 본부장도 오종선 삼도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 임직원과 광주시관광공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해 본격 김장철을 맞아 수확기에 접어들 배추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양 기관은 광주 기업봉사단협의회 회원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았다.

이날 수확된 배추는 삼도농협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은 매년 김장철, 직접 키운 농산물과 부재료를 이용한 김장 나눔사업을 통해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성신 본부장은 "바쁜 수확시기에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인력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친환경 소재 80% 적용 제품 개발

금호타이어는 22일 기준 석유화학 기반의 재료 대신 친환경 신소재를 재료 80%를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카본블랙과 페트병을 재활용한 PET(Recycled PET), 페스틸을 재활용한 스틸 코드(Recycled Steel Cord) 등을 최대 80% 적용한 타이어를 개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한 천연 고무에 관한 국제 플랫폼'(GPSNR) 가이드에 맞춰 천연고무 생산 등 제조과정에서 천연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양산 중에 있다. 또 페플라스틱을 재활용 합성천

합성고무, 쌀겨 기반의 친환경 실리카, 해바라기 유를 사용한 바이오 기반 친환경 케미칼 및 오일, 페타이어 분쇄 가루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다.

조만식 연구개발 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지속가능성'을 꼽고 있다. 대체 재료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금호타이어의 행보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하남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22일 하남농협 안창지점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에서 박상욱 조합장을 비롯한 하남농협 임직원이 김장 김치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남농협 제공>